



칭찬하고 응원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생활의 활력소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릴레이 코너를 마련합니다. <편집자주>

푸른신문에서는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칭찬과 응원, 미담사례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푸른신문 '칭찬하고 응원해요' 란에 들어갈 가족 또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힘이 되는 메시지와 사진을 함께 보내 주시면 예쁘게 편집해서 실어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 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하고 응원해요' 는 계속됩니다.



*접수는 이메일 pr5726000@naver.com로 보내주세요.

푸른방송 총무팀 박소진 사원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항상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언제나 웃으며 맞이해 주는 모습은 지친 상대방의 마음이 좋아지게 합니다.

총무팀이라는 부서 특성상 많은 업무에 힘들 때도 있을 텐데, 늘 명랑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대내·외에서 바라보는 푸른방송의 이미지는 박소진 님으로 인해 엄청난 파급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늘 밝은 미소와 맑은 에너지를 뿌리고 다니시는 박소진 님을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칭찬하는 사람:전정현>



가운데 이영애 씨

산을 좋아하는 씩씩한 친구 노영애~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등산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왔다. “등산 갈래?” 얼굴 보기 무섭게 하는 말~ ㅎㅎ “나이 들수록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해”

항상 등산을 추천해 주는 영애는 산밖에 모르는 친구다.

산행할 때... 꼭 있어야 하는 소중한 친구!

나의 친구로 언제나 든든하게 옆에 있어 줘서 큰 힘이 돼.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씩씩한 너를 본보기로 열심히 운동할게.

너의 도전 정신!!! 응원해^^ 파이팅!!

“우리 이번 주에 등산하러 갈까?”

<칭찬하는 사람:노영애>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무료**로 연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를 통해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니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푸른방송 551-2000, 푸른신문 572-6000